

믿음을 지킴

8/5 월요일

아침의 누림

엡 4:13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1:19

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습니다.

요 3:15-16

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18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일 4:9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살전 3:2

2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격려해서,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의미는 주관적인 의미이다.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와 관련된다. ...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둘째 의미는 객관적인 의미이다.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 곧 우리가 믿는 것들을 가리킨다. ... 신약에는 믿음의 객관적인 방면에 대한 언급들이 가득하다. 유다서 3 절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4장 7 절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두 절에서 언급된 믿음은 믿는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믿음, 즉 우리가 믿는 것들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13 절의 '믿음에서의 하나'라는 표현에 언급된 믿음도 객관적인 믿음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1권, 하나라는 터 위에 서서 기능을 발휘함, 6장, 846쪽)

~~~

오직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것들만이 믿음의 항목들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항목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사람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과 우리를 위해 구속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과 삼 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그 영으로 내려오신 것이 포함된다. ... 우리가 물에 잠기게 하는 방식의 침례나 대환난 이후의 휴가와 같은 문제들을 믿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항목들을 믿는 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기본적인 항목들이 믿음을 구성한다. 나머지 모든 중점들은 믿음의 일부가 아니다. 그보다 그것들은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1권, 하나라는 터 위에 서서 기능을 발휘함, 6장, 847-848쪽)

"믿음...을 가지십시오."(딤후 1:19)라는 표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입받을 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산출한다. 이러한 연결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며, 이것은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또한 선한 양심 곧 거리낌 없는 양심이 필요하다(행 24:16).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의 안전장치이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한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지방의 교회에서 다른 가르침에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써 어떤 이들은 '믿음에 있어서 파선했다'(딤후 1:19). 이것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을 보호해 주는 안전 장치이다. '파선'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이 폭풍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디모데전서 1 장 19 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는 행위인 주관적인 믿음과 우리가 믿는 내용인 객관적인 믿음 둘 다에 대해 말한다.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이들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객관적인 믿음,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었다.(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21-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1 권, 하나라는 터 위에 서서 기능을 발휘함, 6 장;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8/6 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4:7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딤후 6:12

12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딤후 4:1

1 그러나 그 영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사람을 미혹시키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살전 3:5, 6, 10

5 그러므로 내가 참다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6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항상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10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밤낮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갈 1:23

23 그러나 그들은 다만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전에 아주 없애 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듣고서도,

엡 1:9-10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세 방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권익을 위하여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딤후 6:12)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려야 할 길을 달려가는 것(히 12:1)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성한 풍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딤후 3:9)이다. 이 일에서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합당한 본을 세웠다.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후 하늘에 속한 경주를 시작했고,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행 20:24) 쉬지 않고 달렸다(고전 9:24-26, 빌 3:12-14). 이제 마지막에 그는 승리에 찬 방식으로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딤후 4:7)라고 선포했다.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므로 바울은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딤후 4:8).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다. ...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지키는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믿음이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64 쪽)

~~~~

바울은 자신이 여러 다양한 교리들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딤후 4:7)고 말한다. 바울은 어떤 종류의 실행도 너그럽게 받을 수 있고 어떤 교리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3 권, 몸의 하나와 교회생활 안에서의 봉사, 1 장, 64 쪽)

바울은 교리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다.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먼저 우리의 믿는 행위 또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나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곧 주관적인 믿음이다. 믿음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에서의 하나를 말할 때, 이 믿음은 객관적인 것, 곧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키며, 믿는 행위나 믿는 능력을 가리키지 않는다.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현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이실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말한다면, 나는 결코 그와 악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적그리스도들 중 한 명이다(요일 4:3, 요이 10-11). 나는 결코 그러한 사람을 나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어떤 사람이 세례를 옹호하든 침례를 옹호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가 믿는 이이기만 한다면, 즉 그가 이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그는 나의 형제이다. (위트니스리 전집, 1971 년, 4 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 14 장, 234-235 쪽)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주요 항목에 관하여 ... 어떤 이들은 한 지방에 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지 모르지만,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일 뿐 아니라 지방적으로도 하나임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으로서 각 지방에서 교회는 지방적으로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한 지방에 한 교회라는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이 아니라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는 방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뿐이다.

믿음은 교회생활의 특수성이다. 이것은 매우 특수하고 매우 특별한 어떤 것이다. ...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이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딤후 6:12), 이러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하며(유 3), 이러한 믿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1 년, 3 권, 교회생활의 특수성, 일반성, 실행성, 1 장, 60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위트니스 리 전집, 1971 년, 4 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 14 장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 장 12 절에서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이란 신성한 생명의 시간적인 요소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신뢰하지 말고 이 신성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반복하여 강조된다(딤후 1:16, 6:19, 딤후 1:1, 10, 딤후 1:2, 3:7). 디모데전서에서 보듯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에서 보듯이 교회 하락의 추세에 맞서기 위하여, 디도서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생명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105-106 쪽)

~~~~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의 타고난 생명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

'아름다운 고백'(딤후 6:12)은 아름다운 믿음, 곧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완전한 복음을 가리킨다. ... 우리는 모두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 한다.

**8/7 수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6:12, 19**

12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19 그리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보화인 좋은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십시오.

**고후 5:17**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까.

**갈 3:23-26**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될 믿음에 이르도록 갇혀 있으면서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까.

24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어린이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25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이 인솔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26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디모데전서 6 장 11 절과 12 절은 신약 거의 전체에 대한 놀라운 요약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하여 싸워야 하며,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이 모든 항목들은 신약의 본질적인 방면들이다. ...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는 단지 객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음으로써 주관적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 생명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말할 때, 우리는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해야 한다. 심지어 한 켈레의 구두를 살때조차 우리는 우리가 그 안으로 부름받은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오늘 날의 디모데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6 장 12 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한다. 신약에 있는 그 어떤 책도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라고 말하지 않았다. ... 여러분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는가? 이 영원한 생명은 주로 장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현재 생활을 위한 생명이어야 한다. 첫 번째 출생인 육신의 출생을 통해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받았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생명 곧 타고난 생명을 살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참되게 인간적이어야 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인간적이어야 하지만 타고난 생명 안에서

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이 생명을 살아야 한다.

나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깊은 부담이 있다. 나는 특별히 우리가 그 안으로 부름받은 영원한 생명에서 빛나가고 다른 것들에 사로잡힌 사랑스러운 성도들에 대해 염려한다. 우리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 이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므로 이제 이 생명을 붙잡고, 이 생명을 살며, 온전히 이 생명을 따라 처신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106-10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 2:2**

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엡 3:4**

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 믿음은 첫째로 우리가 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다음 우리가 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입받았다. 그 결과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다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를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으로 옮겨 부어지시고 주입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새사람의 일부가 된다. 하나의 총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몸과 새사람이 된다. 이것이 믿음

**8/8 목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1:4**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딤후 3:9**

9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롬 12:4-5**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롬 1:1, 3-4**

1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2-13 쪽)

~~~

디모데전서 3 장 9 절에서 믿음은 디모데전서 1 장 19 절과 디모데후서 4 장 7 절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것이며, 우리가 믿는 것들, 곧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믿음의 비밀은 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골 2:2)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엡 3:4)이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집사는 주님의 증거를 위하여, 순수한 양심 안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한다.

집사들이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특별히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할 때, 그들은 자신이 믿음의 비밀에 따라 성도들을 섬기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의 봉사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집사들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근거하여 다른 이들을 접촉한다면 거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3 장 9 절에서 순수한 양심은 혼합된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된 양심이다. 주님의 증거를 위하여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순수하게 된 양심이 필요하다.

순수한 양심을 갖기 위하여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집사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결핍, 즉 자신이 믿음의 비밀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집사는 우선 자기 자신의 양심에 준하여 의로워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비밀의 표준에 따라 살고 있음을 심지어 마귀에게도 말할 수 있는 양심을 소유해야 한다. 그럴 때 그는 참으로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51-52 쪽)

디모데후서 1 장 3 절에서 바울은 "... 조상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다(행 24:14, 빌 3:3). 바울은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락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순수한 양심, 곧 혼합된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된 양심이 필요하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주님께 매우 정직하고 진실하며 신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뿐 아니라 또한 순수한 양심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순수한 양심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이 순수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순수한 양심을 갖고 있다. 사탄아, 너는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회복을 위하여,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권익을 위하여." ...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원수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주님의 피는 원수를 이긴다. ... 원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배우라. "사탄아, 네가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말을 믿지 않겠다. 나는 또한 네가 나를 억누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4-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8/9 금요일

아침의 누림

유 3

3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딤후 1:4

4 나 바울은 동일한 믿음에 따라 참된 아들이 된 디도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 6:7

7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딤후 5:8

8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딤후 6:10

10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떠나 길을 잃고,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찢었습니다.

딤후 3:8

8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생각이 부패하고 믿음에 있어서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딤후 1:13

13 이 증언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엄히 책망하여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벧후 1:1

1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유다서 3 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믿음이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인 신약의 내용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행 6:7, 딤후 1:19, 3:9, 4:1, 5:8, 6:10, 21, 딤후 3:8, 4:7, 딤후 1:13). 우리가 신약의 내용들을 믿을 때, 우리는 함께 누리는 구원을 받는다. 어떤 교리가 아닌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한번 만에 영원히 전달되었다.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한다 (딤후 6:12).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4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98, 160 쪽)

~~~~

주관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고, 객관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가리킨다. 디모데전서 1 장 19 절에서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믿음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믿는 역량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언급된 믿음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할당되었다고 말한다(벧후 1:1). 이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가리키는 유다서 3 절에 있는 믿음과는 다르다.

객관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언장의 내용과 같다. ...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새 유언장의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유언장에는 심지어 삼일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이나 발을 씻겨 주는 것이나 침례의 방식 같은 문제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떤 믿는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 싸우면서 자신들이 믿음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가 성도들에게 한 번 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한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새 유언장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객관적인 믿음은 몇몇 기본 진리들로 구성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셋이신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심을 믿는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되신 것을 믿는다. 셋째로, 우리는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확고히 하신 것을 믿는다. 제삼 일에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또한 지금 그분은 우리의 구주, 부활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은 용서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오셨으며,

우리는 거듭났다. 결국 주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그분 자신께로 맞아들이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진리들, 곧 기본 교리들로 구성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건전하고 참된 모든 믿는 이가 이러한 기본 진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진리들은 동일한 믿음(딤후 1:4)이라 불린다.

성경의 어디에도 우리가 교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곳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유 3)과 관련된 믿음을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은 우리의 동일한 믿음에서 온다. ... 여러 다른 교파들은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강조하고 그 교리들을 붙잡고 있다. 우리는 교리를 위해 싸워서 안 되지만, 믿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싸워야 한다. 디모데전서 6 장 12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지만, 우리의 교리를 위해 싸워서 안 된다.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는 반드시 담대하고 강하고 명확해야 하며, 성도들에게 한 번 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리에 관한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관대해야 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4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98, 160-1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4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98; 유다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3*

8/10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4:13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6:21

21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을 주장하다가, 믿음에 있어서 표적을 놓쳤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4:1-6, 12

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2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에베소서 4 장 3 절에 있는 그 영의 하나는 실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하나이다. 4 장 13 절에서의 하나는 실행적으로 우리 생활에서의 하나이다. 우리에게 이미 실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하나가 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실행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 되는 데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 방면에서의 하나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다. 유다서 3 절, 디모데후서 4 장 7 절, 디모데전서 6 장 21 절에 계시된 대로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일과 같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믿음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을 굳게 붙잡을 것이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교리상의 관념들을 모두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실행적인 하나에 이르게 (또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를 것이며,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것이다.(엡 4:13 각주 1)

~~~

에베소서 4 장 13 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르러야 할 필요에 대해 말한다. 이 문제는 성도들뿐 아니라 에베소서 4 장 11 절에서 언급된 은사있는 사람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은사 있는 사람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러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를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받아들이는 빛이 그저 진리의 표면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를 길이 전혀 없다.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적으로 알고 있다면 주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4 장 5 절은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판단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유대인이 주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대해 질문하자 주님은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입니다.”(마 12:8)라고 대답하셨다. 사실상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 관한 문제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중심 삼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 중심에서 벗어날 때 즉시 하나는 사라진다. ...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면 다름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정신적인 이해가 아니라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인식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 장 13 절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는 것, 즉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의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휴거에 대한 논쟁에서 이길지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체험한다면 휴거에 관한 예언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에서의 하나는 휴거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교회의 행정과 관리의 문제에서 ... 모든 실행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큰 원칙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떤 논쟁도 하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취하고 우리의 조망을 넓힌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믿음에서의 하나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에 달려 있다. (교회를 돌보는 길, 3 장, 63-6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를 돌보는 길, 3 장; 교회의 믿음과 증거와 터, 4 장*

8/11 주일

아침의 누림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히 10:39

39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히 11:1-3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2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에 있어서 좋은 증거를 지냈습니다.

3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히 12:1-2

1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찬송: 1285 (英)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9:6-17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43-44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Hope as the Anchor of the Soul that Enters Within the Veil

Scripture: Heb. 6:18-20

Assigned Reading: *The Central Vision for Serving the Church*, ch. 6

Supplemental Reading:

Questions:

1. What is the significance of hope as an anchor the soul?
2. What does it mean that the hope in Heb. 6:19 enters within the veil?
3.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hope, especially as it i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4. What is your understanding of Jesus as the Forerunner (Heb. 6:20)?